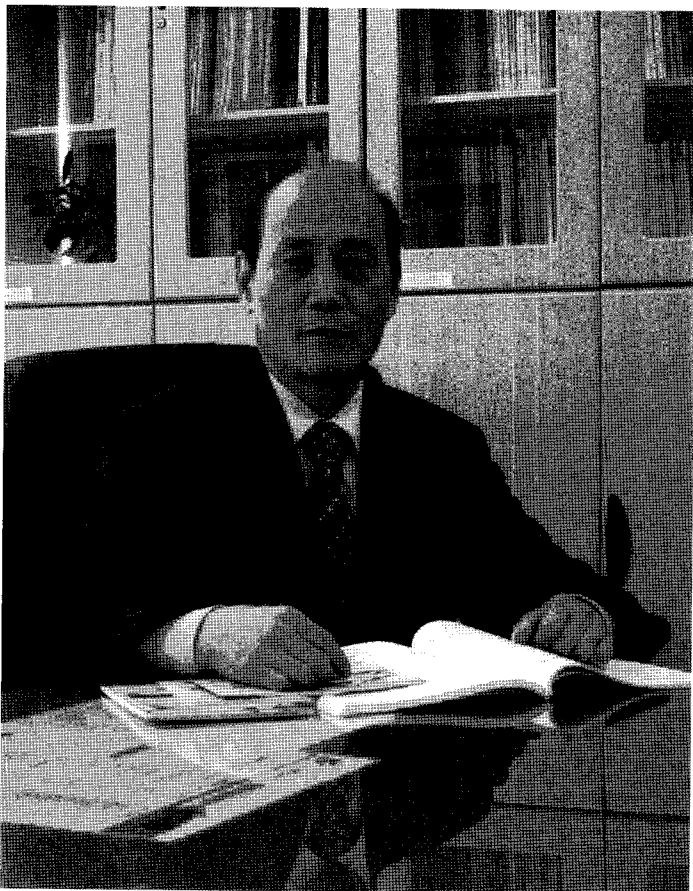


홍무기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

조직 경쟁력 제고 통해 농식품안전성 조기 확립 할 것

무려 19여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한 셈이다. 조직이나 업무 등 많은 면에서 낯설지가 않는다. 오히려 농식품안전성 조기 확보를 위해선 그간의 경험이 천군만마다. 연구 및 관리능력을 발판으로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조직문화 정착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기동 중인 '유해물질신속대응팀' 과 '홍보TFT' 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을 구상중이다. 홍부장은 의욕이 넘치다며 연말 즈음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보부-



부임하신지가 벌써 3개월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소회를 주신다면?

벌써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26일 부임당시 농촌진흥청은 제2의 도약을 위해 조직 및 인력에 대한 1차 개혁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우리 농산물안전성부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부임 후 지금까지 조직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오랜 기간 재직하신 식약청을 떠나 이곳에 오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식약청에서 식품의 잔류농약을

비롯한 중금속, 다이옥신, 독소 등 유해 물질 및 신종 유해물질의 연구, 관리업무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농림부가 농림수산물식품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농진청의 농산물안전성 분야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식품 및 안전성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이곳에 오게 되었고 다행히 그 경험이 헛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관리 수장으로서 부(部)의 운영 철학을 드신다면 ?

철학이라기보다는 창의성과 열정을 깨울 수 있는 조직문화 제도 정착을 위해 부서별 연구실별 연구 성과 및 업무 실적에 따른 성과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경쟁력이 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농산물 안전성을 논할 때 잔류 농약만을 떠올리는 경향인데 실제 식품오염원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더라도 광우병 문제, 수입 유제품의 멜라민 파동이나 수입 김치의 기생충 알, 땅콩버터의 살모넬라 오염문제 등 식품오염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오히려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문제는 그 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 농산물안전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부분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수준으로서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일부 농산물에 아주 미량이나마 검출되고 있는 잔류농약들도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거나 극히 적어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차제에 안전사용 기준과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잔류 허용기준(MRL)이란 국민이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하여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잔류량을 법으로 정한 수준을 말하고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약의 살포횟수와 수확 전 최종 살포일을 규정한 것을 안전사용기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식량위기 가능성이 제기 되는 등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데요, 소비자들은 실감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만...

2008년부터 시작된 환율, 유가상승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농가경영비 상승



“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부분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수준으로서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

및 농자재 값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세계적인 곡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어 안정적인 농산물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식량위기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작물보호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물보호제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며 지구의 온난화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그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작물보호제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 사용기준에 맞추어 생산한 농산물이야말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농약 및 농산물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로서 견해를 주신다면?

농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작물재배 기간 중에 분해 또는 대사되어 많은 양이 소실됩니다.

또한 법으로 정하여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독자 분들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안전성 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